

연령 대상: 0~18세(영유아~청소년)

Model 1: 모든 아동 관련 의료기관
(보건소, 1차병원 소아과 등)

Model 2: 아동 외상 관련 의료기관
(응급실, 외상외과 등)

1. Speech & Face emotion: 두 가지 feature를 하나의 모델로 한 번에 training => output은 공격성, 위축됨, 두려움을 0~1 scale로 표현해 개별적으로 최종 모델에 입력
*0~3세에서는 둘 다(Speech, Face emotion) 사용X
*Speech 중 언어적 표현을 LLM을 이용해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X

1. Speech & Face emotion: Model 1 과 동일

2. Bruise: 앱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의료진이 간단한 조작(ex. 터치)로 멍의 위치와 개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

2. Bruise: 의료진이 찍은 멍의 사진들을 이용해 멍의 위치, 개수, 장경, dating을 예상함
*dating의 경우 History taking과 비교 가능

3. Basic information: Height, Weight, Age, Sex, 보호자 등등...

3. Basic information: Model 1과 동일

4. History taking: 의료진이 멍의 발생 원인 및 기본적인 돌봄/위생 상태 등에 대한 문진 내용을 scale에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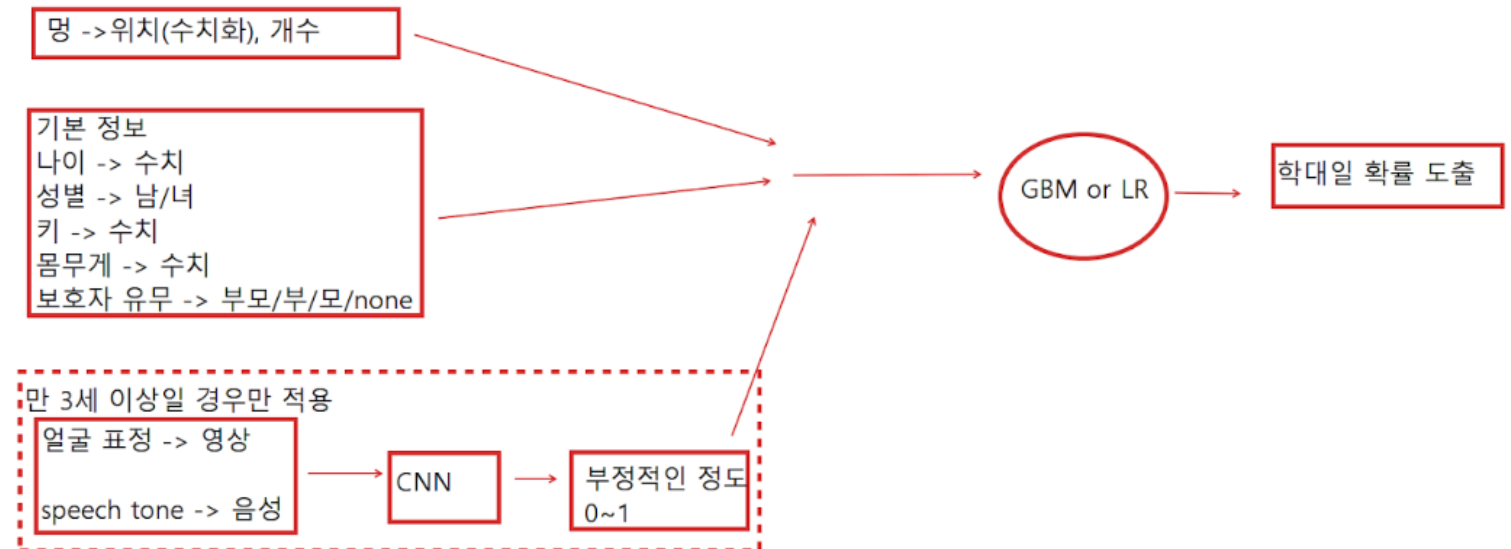
5. X-ray: 응급실 및 외상외과 입원 시 찍어둔 X-ray 사용
*Model 1에서는 X-ray가 선별검사의 목적을 해친다고 판단해 했으나, Model 2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환아가 X-ray 찍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함

6. Lab: 영양실조 등과 관련이 있는 지표(ex. Hb)를 사용

1. GBM
2. Logistic regression
등의 방법으로 결과 종합

1. GBM
2. Logistic regression
등의 방법으로 결과 종합

Track 1



Track 2

